'38홈런' 김도영, 시즌 최종전서 40-40 마지막 도전

오늘 광주서 NC와 맞대결
홈런 두 개 날려야 대기록
올 시즌 안방서 16개 생산
멀티포 문학·수원서 경험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6차전 7회초 2사 만루 기회에서 쓰리 볼 타격을 시도했으나 헛스윙이 되자 헬멧을 벗고 아쉬워하고 있다. 뉴시스

'야구 천재'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올 시즌 최종전에서 40홈런-40도루를 향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현재 38홈런과 40도루를 생산한 만큼 기록 달성을 위해서는 멀티포가 필요한데 김도영이 몰아치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김도영은 지난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6차전(최종전)에서 4타수 2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KIA의 12-8 역전승에 기여했다.

하지만 멀티히트를 생산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탠 맹활약에도 김도영은 미소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쓰리 볼 타격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홈런을 노렸음에도 지난 24일 광주 삼성전부터 대포가 네 경기 연속 침묵하고 있는 탓이다.

김도영은 현재 그동안 KBO 리그 토종 선수들이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40홈런-40도루에 도전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 역시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직행이 확정된 이후 김도영을 주로 1번 타자 겸 지명 타자로 배치하며 체력 안배와 함께 기록 달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사령탑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도 김도영은 정규 시즌 우승 확정 직후인 지난 19일 잠실 두산전부터 여섯 경기에서 홈런포를 한차례 밖에 가동하지 못했다. 23타수 10안타로 시즌 타율은 3할4푼4리에서 3할4푼8리로 더 끌어올렸지만 2루타 없이 3루타 두 개와 홈런 한 개로 장타가 침묵하고 있다.

특히 최근 네 경기 중 광주와 대전에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침묵한 것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실투를 놓치거나 스윙에 힘이 들어가는 등 기록 달성을 의식해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 김도영은 마지막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KIA와 김도영 모두에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 오는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다이노스와 맞대결이다.

김도영은 최종전 역시 리드오프로 나설 전망이다. 최근 여섯 경기를 전방 배치돼 평균 네 타석에서 다섯 타석 정도를 소화한 것을 감안하면 타석에 들어서는 기회 중 절반을 홈런으로 연결해야 하는 셈이다.

올 시즌 안방인 광주에서 김도영은 16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다. NC를 상대로는 네 차례 홈런이 있다. 김시훈과 김재열, 배재환, 카일 하트를 상대로 터트렸고 이 중 세 차례가 홈경기였다.

공교롭게도 김도영은 프로 데뷔 후 안방에서는 멀티 홈런 경험이 없다. 지난해 문학에서 한차례 경험했고, 올해는 문학과 수원에서 한차례씩 터트렸지만 아직 광주에서는 한 경기에 두 번 담장을 넘기지 못했다.

상대 투수진의 집중 견제도 이겨내야 한다. 김도영이 타율뿐만 아니라 장타율에서 6할5푼, 출루율에서도 4할2푼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쉽게 승부를 들어오지 않는다. NC는 이재학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차례지만 공필성 감독 대행은 불펜 데이도 고려 중이다. 까다로운 투수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김도영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팬들의 힘이다. KIA는 최근 여덟 경기 연속 전석 매진을 달성하며 구단 사상 최다 연속 만원 관중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올해 정규 시즌 최종전인 NC전 역시 휠체어석을 제외하고 모든 좌석이 예매 오픈 직후 동났다.

김도영이 몰아치기에 능한 타자라는 것 역시 긍정적인 요소다. 김도영은 지난 4월 세 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KBO 리그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6월과 7월에도 세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바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체고 김찬(오른쪽 두번째)과 기은결(왼쪽 두번째)이 제5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육상경기대회 남고1학년부 100m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뒤 시상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체고 육상부 제공

광주체고 육상, 초·중·고 학년별육상대회서 메달 13개

금 4·은 4·동 5개 수확

광주체육고 육상선수단이 제5회 전국 초·중·고등학교학년별육상경기대회에서 총 13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체고 육상선수단은 지난 23~27일 충북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김찬이 2관왕을 차지했다. 김찬은 남고2학년부 100m에서 11초07로, 200m에서 22초24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태언은 남고1학년부 110m허들에서 14초93의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빛 질주를 펼쳤다. 이현진은 남고1학년부 해머던지기에서 42m19를 던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고1학년부 해머던지기(32m76)의 장성연과 남고1학년부 1500m(4분06초99)의 김경운, 남고2학년부 100m(11초08)의 기은결, 남고1학년부 400m(50초36)의 박태언은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고 2학년부 400m(49초44)의 장근오와 여고 2학년부 200m(26초41)의이혜인, 여고 1학년부 100m(12초87)의 조수빈, 남고 3학년부 1500m(4분12초82)의 이은규, 남고 3학년부 창던지기(54m33)의이승헌은 각각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재다 광주체고 육상 감독은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이번 대회에 출전했는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줘 만족한다"며 "남은 기간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전국체전에서 광주 육상의 저력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FC, 가와사키 원정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2연승 도전

내달 1일 오후 7시 도도로키경기장

광주FC가 구단 역사상 첫 일본 원정길에 올라 승리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0월 1일 오후 7시 일본 도도로키 육상 경기장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 상대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이하 ACLE) 그룹 스테이지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17일 ACLE 1차전 홈경기에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7-3으로 대파하며 조 선두에 오른 광주는 이번 원정 경기 승리로 2연승을 달성하여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K리그1 7위에 위치해 파이널B가 확정된 광주는 강등권 팀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ACLE도 중요하지만 리그의 안정적인 순위 확보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로테이션 가동을 시사했다.

하지만 로테이션 멤버를 출전시킨 코리아컵에서 K리그1 선두 울산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만큼 누가 출전하더라도 광주의 팀컬러와 전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ACLE 1차전에서 주장으로 출전해 든든한 존재감을 선보인 이민기와 베테랑 수비수 이으뜸이 후방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공격에서는 개인기와 돌파력을 두루 갖춘 오후성과 김한길의 중용이 예상된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홈경기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광주를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4-1-2-3,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가와사키는 9년 차 베테랑 골키퍼 정성룡이 현재까지도 J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활약 중이며 리그에서 14골을 기록 중인 젊은 공격수 야마다 신의 득점 능력이 눈에 띄는 팀이다.

또 지난 27일 알비렉스 니가타와의 리그 경기에서 5-1 대승과 함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15위였던 순위를 11위까지 상승시켰다.

그러나 가와사키는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동시에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허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의 수비진을 잘 공략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가와사키전이 펼쳐지는 날 광주에서는 구단 역사상 첫 원정 승리를 기원하며 충장로 전일빌딩245 앞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이 펼쳐진다. 강기정 구단주와 빛고을 서포터즈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한규빈 기자

광주·전남 양궁, 국가대표 1차 관문 15명 통과

2025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궁사 15명이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태극마크를 향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양궁협회는 지난 27~28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2025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개최했다.

광주·전남 양궁은 1차 선발전에서 15명이 생존했다. 전 국가대표 김수린(광주시청·3위),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텐텐양궁단·10위),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남구청·11위), 최미선(광주은행텐텐양궁단·11위)이 '그 실력 그대로' 64명이 경쟁하는 2차 선발전에 진출했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14위)과 2024 태극마크 오예진(광주여대·21위), 이은경(순천시청·25위)도 가볍게 64강에 합류했다.

이밖에 여자부에서는 김이안(광주은행텐텐양궁단·31위), 유시현(순천시청·51위), 이가영(광주시청·60위), 탁혜윤(순천대·63위)이 이름을 올렸고, 남자부에서는 이원주(조선대·42위), 진효성(44위)이 2차 도전을 이어간다.

'고교생 궁사' 박주혁(광주체고·47위)과 조한이(순천여고·47위)의 '무한 도전'도 기대를 모은다.

1차 선발전은 70m(36발) 경기를 8회 실시, 기록합계(총점) 상위자 순으로 선발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남녀 각 64명은 다음달 28일부터 11월2일까지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2차선발전에서 역배점을 안고 토너먼트와 기록경기를 펼쳐 최종 남녀 각 20명을 가린다.

최동환 기자